

듣기 통합 (1번 ~ 30번)

※ [1~2]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 여자: 사람도 많은데 그냥 걸어갈까요?
 남자: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여자: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냥 계단으로 가요.



2. 여자: 회의 자료 복사하는 거예요?
 남자: 네. 몇 장만 더 복사하면 돼요.
 여자: 그래요? 전 회의실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 [3~6]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 (3점)

남자: 늦어서 미안해요.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났어요.
 여자: 괜찮아요. 새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어때요?
 남자: _____

- ① 저도 늦게 왔는데요.
- ② 빨리 시작하면 더 좋지요.
- ③ 처음이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 ④ 일이 어렵지 않아서 좋겠어요.

4. (3점)

여자: 민수가 웬일로 결석을 다 했지?
 남자: 연락도 없이 안 온 적이 없었는데.
 여자: _____

- ①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왔지?
- ② 수업에 빠졌으니까 잘 모를 거야.
- ③ 바쁜 일이 있어서 결석을 자주 해.
- ④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전화해 볼까?

5. (3점)

남자: 이번 부산 출장은 기차로 가는 게 어떨까요?

여자: 기차요? 어제는 차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남자: _____

- ① 내가 기차 시간부터 알아볼게요.
- ② 차로 가는 게 더 편하고 좋잖아요.
- ③ 운전해서 가면 피곤할 것 같아서요.
- ④ 예매를 안 하면 표가 없을 것 같아요.

6. (4점)

여자: 우리 이 식당에 같이 온 거 오랜만인 것 같네요.

남자: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지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자: _____

- ①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야 해요.
- ②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 ③ 저도 그 식당에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 ④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그새 유명해졌나 봐요.

12. 남자: 인주시가 '외국인이 가장 가 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도시'로 뽑혔습니다. 인주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시설도 적어 관광객이 별로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최근 3년간 인주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① 인주시는 다양한 문화 시설을 가지고 있다.
- ② 인주시는 교통이 편리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③ 인주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이다.
- ④ 인주시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3. 여자: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사는 해외에서 활발히 봉사 활동을 하시는 이소영 씨입니다. 오늘 강연은 특별히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여러분에게서 받아 둔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소영 씨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볼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소영 씨의 봉사 현장을 영상물로 함께 보시죠.

- ① 오늘 강연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다.
- ② 질문에 대한 강사의 대답을 미리 받아 두었다.
- ③ 이소영 씨는 해외에서 강연을 활발히 하고 있다.
- ④ 영상물을 통해 이소영 씨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 [14~17]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 (4점)

여자: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네.

남자: 감기는 약을 먹든 안 먹든 일단 시간이 지나야 낫더라고. 약을 먹는 것보다 그냥 푹 쉬면서 목을 좀 따뜻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

- ① 감기는 시간이 지나야 낫는다.
- ② 목이 따뜻해야 감기에 안 걸린다.
- ③ 약을 안 먹으면 감기가 더 심해진다.
- ④ 물을 마셔도 기침을 하면 쉬어야 한다.

15. (4점)

여자: 넌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돼? 난 노래를 들으면 공부에 방해가 되던데…….

남자: 난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될 때 음악을 들어. 그러면 주위 소리도 안 들리고 딴 생각도 안 하게 되거든. 특히 외국 노래나 클래식을 들으면 공부가 잘돼.

- ① 음악이 없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된다.
- ② 음악을 듣는 것은 집중에 도움이 된다.
- ③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은 좋지 않다.
- ④ 외국 노래를 듣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

16. (3점)

여자: 목표로 한 시간만큼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선생님, 계획한 시간만큼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남자: 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도 길어지지요. 특히, 상대방이 자신보다 운동을 잘하면 자신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 ① 운동을 잘하려면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상대방을 의식하며 운동하면 오래 하기 어렵다.
- ③ 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 ④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계획한 시간을 지켜야 한다.

17. (4점)

여자: 집에서는 아이가 떼를 써도 안 들어주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떼를 쓰면 부모는 당황스러워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아이가 혼란을 느껴 더 떼를 쓰게 되지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집에서나 밖에서나 부모의 태도가 늘 같아야 합니다.

- ① 상황에 맞게 아이를 대해야 한다.
- ② 항상 같은 태도로 아이를 대해야 한다.
- ③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
- ④ 아이가 떼를 쓸 때는 가만히 두어야 한다.

※ [18~20]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 (3점)

여자: 음, 양파, 당근은 다 씻었고……. 재료는 다 준비됐네.
 남자: 응. 재료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뭐부터 하지? 음, 난 양파를 썰어야겠다. 그동안 넌 당면을 삶을까?
 여자: 당면? 채소부터 볶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 아니야. 당면부터 삶는 게 맞아. 요리책에서 봤거든.
 여자: 그래? 알았어.

- | | |
|------------|--------------|
| ① 양파를 썬다. | ② 당면을 삶는다. |
| ③ 채소를 볶는다. | ④ 요리책을 살펴본다. |

19. (3점)

여자: 여기 신청서 다 썼는데요. 이제 뭘 하면 돼요?
 남자: 먼저 시력검사를 하시고 면허 시험 보시면 됩니다.
 여자: 그래요? 검사는 어디서 해요?
 남자: 여기 접수증을 가지고 지하에 있는 검사실로 가세요. 시력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 줄 거예요.
 여자: 검사가 끝나면 바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남자: 네.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자: 네, 알겠습니다.

- | | |
|-----------------|-------------------|
| ① 시험장으로 들어간다. | ②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 |
| ③ 시험 신청서를 작성한다. | ④ 지하에 있는 검사실로 간다. |

20. (4점)

남자: 전시회 준비는 잘돼 가요?

여자: 네, 지금은 전시장에 놓을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잠깐 봐 주실래요?

남자: 음, 좋네요. 아, 그런데 여기 작품 사진들이 너무 작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진 크기나 위치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여자: 안 그래도 지금 위치들을 좀 바꿔 보려고 했어요.

남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만든 후에 좀 보여 주세요.

- ① 전시장에 책자를 놓아둔다.
- ② 책자를 남자에게 보여 준다.
- ③ 책자의 사진 위치를 바꾼다.
- ④ 전시회 준비 사항을 확인한다.

※ [21~22]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아주 힘 있는 무대였는데요. 뮤지컬 공연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하시려면 체력도 중요하겠어요.

여자: 네. 좋은 배우라면 노래, 춤, 연기 다 잘해야겠지만 체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나이 들면서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남자: 아, 그렇군요. 그럼 작품을 많이 안 하시는 것도 그 때문인가요?

여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하지만 제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어서 일 년에 한두 작품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21.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여자는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한다.
- ② 여자는 오랜 기간 공연을 하지 않았다.
- ③ 여자는 체력 관리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
- ④ 여자는 일 년에 여러 작품을 하지 않는다.

22. 여자는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 ① 공연 관람객
- ② 뮤지컬 배우
- ③ 공연 관계자
- ④ 뮤지컬 연출가

※ [23~24]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최근 서울시의 우체국에서 특별한 우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김원일 우체국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네. 요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면서 편지를 점점 보내지 않게 되었는데요. 사실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우체통이 별로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체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방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편지를 받아 옵니다. 댁에서도 쉽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3.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 ① 서비스의 성과를 알려 주고 있다.
- ②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서비스의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24.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를 고르십시오.

- ① 우편물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 ② 우체국 직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 ③ 우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 ④ 더 편리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25~26]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오늘은 글로 쓴다는 것이 어떤 힘을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은 후, 한 팀에게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한 팀에게는 말로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쓴 학생들은 57%가 봉사 활동에 나온 반면 말로만 약속을 한 학생들은 17%만이 참여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글로 쓰는 것이 스스로를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25. 여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4점)

- ① 봉사 활동은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한다.
- ②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글로 남기는 것은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한다.
- ④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6. 여자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점)

- ① 실험 결과
- ② 조사 자료
- ③ 전문가의 의견
- ④ 신문 기사 내용

※ [27~28]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요즘 등산로에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흙길이었던 곳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산을 오르기가 편해졌습니다. 또 등산로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남자: 나무 계단이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에 나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을 해칠 수도 있고 계단에 바르는 기름 때문에 땅이 오염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사람의 편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도 보호해야 합니다.

27. 여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나무 계단은 등산객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 ② 등산할 때는 계단보다는 흙길로 가는 것이 좋다.
- ③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계단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산로를 늘려야 한다.

28. 남자의 생각이나 태도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여자의 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여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여자의 의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④ 여자의 생각에 동의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 [29~30]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주차장에 세워 두기만 하던 자가용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자: 최근 김민수 씨는 자가용을 대여해 주며 얼마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차 유지비는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차를 빌려 주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여료나 보험 같은 귀찮은 문제를 중개업체가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빌려 줄 수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 역시 값이 렌터카보다 싼 데다가 가까운 곳에서 차를 빌릴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29. 이 뉴스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점)

- ① 주차장, 차 세울 곳 없어
- ② 중개업 믿었다가 큰코다쳐
- ③ 렌터카 가격 지역마다 달라
- ④ 잠자던 자가용으로 수익 올려

30.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3점)

- ① 차를 대여할 때 보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② 가까이 있는 차를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어 편리하다.
- ③ 렌터카 회사를 통해서 자가용을 빌리면 대여료가 더 싸다.
- ④ 개인의 차를 대여해 주다 보면 귀찮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